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No Rad:

아이코닉한 모델을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

블랑팡이 역사적 타임피스 중 하나인 피프티 패덤즈 “노 래디에이션”(Fifty Fathoms "no radiations")을 재해석한다. 1960년대 중반 독일 전투 잠수 부대가 사용한 다이빙 장비 중 하나인 이 타임피스는 블랑팡이 당시 발광 물질인 라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을 표기한 “no radiations”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계 다이얼 위에 자리한 이 특별한 기호가 시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 타임피스와 베리에이션들은 현재 가장 아이코닉한 피프티 패덤즈 모델을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레드(Tribute to Fifty Fathoms Fifty Fathoms No Rad)가 이들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컬렉터라면 주목할 것. 이 시계는 5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레드 워치가 그것에 영감을 준 역사적 모델을 재해석한다. 매트한 딥 블랙 다이얼 위에 기하학적인 아워 마커가 자리하며 전통적인 원형 도트와 직사각 마크, 12시 방향의 다이아몬드 모양 마크와 어우러진다. “과거의 라듐” 컬러를 입은 슈퍼-루미노바로 채운 챕터 링, 바늘, 베젤 위 눈금은 시간의 흔적을 머금은 듯한 빈티지한 베이지-오렌지 컬러를 하고 있다. 3시 방향의 날짜 창은 1960년대 모델에서도 볼 수 있듯 화이트 테두리로 강조했다. 옐로 & 레드 컬러의 “no radiations” 로고는 여전히 다이얼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로서 시계의 강렬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초창기 피프티 패덤즈 모델의 전형적인 눈금을 올린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이 최신 컬렉션의 특징인 사파이어 인서트를 탑재한 점이 눈길을 끈다. 돔 형태의 측면 모습이 이미 글라스박스 타입의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강조한 입체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300m 방수 가능한 스틸 케이스는 리미티드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워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이즈인 40.3mm로 선보인다. 심장에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4일 파워리저브 가능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블랑팡 칼리버 1151을 탑재했다. 두 개의

배럴을 와인딩하는 로터에 카트리지 형태로 구멍을 내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 워치를 포함한 컬렉션의 역사적 타임피스에 경의를 표한다. 이는 원래 무브먼트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로터를 유연하게 하고자 채택한 디테일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시계에는 견고함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당시 дай버들에게 매우 사랑받은 “트로픽(Tropic)” 타입 러버 소재 스트랩을 매치했다.

이 리미티드 시리즈를 통해 블랑팡은 전 세계 전투 잠수 부대에 시계를 공급한 과거 역사에서 가져온 특별한 장비를 다시 복원했다. 1953년 프랑스 전투 잠수 부대는 수중 미션에서 피프티 패덤즈를 처음 사용했다. 방수성, 가독성, 안정성, 견고성을 모두 만족시킨 이 시계는 그들의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후 독일 군대가 1960년대 중반 현재 “BUND No Rad”라 알려진 피프티 패덤즈 RPG 1 모델을 구입했다. 이 이름은 군대라는 의미의 독일 단어 “Bundeswehr”에서 가져온 것으로 독일의 엘리트 전투 잠수 부대인 “캄프프슈비머(Kampfschwimmer)”가 소지한 시계 케이스백에 인그레이빙되어 있었다. RPG 1 모델에서 “no radiations” 로고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피프티 패덤즈 다이얼에 처음 새겨진 것이었다.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발광하는 부분에 사용하던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1960년대 초 밝혀졌다. 블랑팡은 전문 дай버뿐 아니라 전문 장비 업체에서 피프티 패덤즈를 구입한 아마추어 잠수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시계에 라듐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노란 배경에 검은 십자가와 세 개의 빨간 구역이 그려진 기호, 그리고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no radiations” 글자도 함께 추가했다. 동일한 로고가 “BUND No Rad”의 캘린더 베리에이션 모델인 피프티 패덤즈 RPGA 1에도 등장하며 주요 특징으로 선보였다.

다이얼 위 “no radiations” 로고로 라듐이 없음을 표기한 이 дай버 워치는 현재 컬렉터에게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다. 이제 70 여 년이라는 세월을 품은 피프티 패덤즈의 전설적인 유산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